

## 「가슴 아픈 사건」: 더피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김 상 호

### I. 서론

인간의 성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은 인간의 성격을 정의하고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이해, 이것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관심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예술과 민족, 국가, 종교, 정치와 같은 거대 담론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오한 주제는 바로 인간의 이해라는 근본적인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이스의 작품은 인간의 이해에 대한 연구 혹은 인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성격의 연구는 인간의 삶과 생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수 있다. 인간은 서로를 알고 이해할 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 성격의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그러한 성격 유형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여 원만한 성격을 지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이스는 그의 작품에서 이상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러한 희망을 반영하고자 했고, 특히 이러한 문제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했다.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의 하나이며, 인간관계 혹은 남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 역시 사랑을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욕망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인식이 가장 잘 표현된 대표적인 작품이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의 주제를 “매정함”(lovelessness, Tindall 31) 혹은 “사랑의 부재”(Herring 63)라고 할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정작 그 주제가 되는 사랑이 부재한다. 그렇지만, 그 주제는 사랑이며, 그 사랑의 주제는 사랑의 부재 혹은 사랑의 불모에 대한 작가의 비판 혹은 안타까움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가슴 아픈 사건」의 제임스 더피(James Duffy)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시된다.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남녀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과 어떤 교류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정신적인 삶”(D 107)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과 교류하지 않는”(Wachtel 49) 인물이다. 이러한 삶을 살던 그는 시니코 부인(Mrs. Sinico)을 만나 남녀 간의 사랑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그의 모진 성격이 부드러워지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시니코 부인이 열정적인 사랑의 몸짓을 내비쳤을 때, 그는 이를 강렬하게 거부하고 수도승과 같은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도 사라져 버린다. 더피

는 왜 사람을, 특히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가? 물론 그 이유는 작품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듯이 그의 괴이한 성격 때문이다. 여러 비평가들은 그의 성격을 초인적 성격(Connolly 111), 강박 신경증(qtd. in Connolly 111), 나르시시즘적 성격(Wheatley-Lovey 175)과 편집증(Leonard 211) 등으로 설명하며, “육체적 순결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아일랜드 가톨릭교의 영향”(박윤기 8)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은 더피가 사람을 특히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인적 성격과 강박신경증, 나르시시즘적 성격, 그리고 편집증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더피가 그러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가톨릭교의 영향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더피가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며, 이러한 그의 성격은 가톨릭교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을 그의 성격 형성의 원인과 그가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더피가 사람을 혹은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이유와 그 이유의 형성 원인을 찾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마도 조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불모 즉, 인간애(人間愛)와 이성애(異性愛)의 부재 상태를 비판하고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장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격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전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성격을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에서는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라고 말한다. 이러한 성격장애 중에서도 정신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는 더피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더피가 사람 혹은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때문이며, 그가 그러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 것은 그의 과거의 성장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추적해 보고, 그의 성격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일랜드의 역사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은 더피의 성격과 그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더피와 우리의 삶을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더피는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조이스가 그의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더블린 사람들』의 주제가 “마비” (*Letters* 83)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마비의 주제는 작품 전편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으며, 「가슴 아픈 사건」에서 주인공 더피의 사랑에 대한 관념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마비의 주제는 더피가 사람을 특히, 여성을 사랑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더피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의 마비된 삶은 그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성격장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성격장애를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의 기대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있고, 지배적이고 유연성이 없으며, ...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된,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내적 경험과 행동의 유형”(Alloy et al. 287 재인용)으로 정의하며, 제럴드 데이비슨(Gerald Davison)은 “문화적 기대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유연하지 못한 내면적 경험과 행동의 유형”(263)으로 정의하고, 로널드 코머(Ronald Comer)는 “내적 경험과 외적 행동의 매우 경직된 형태”(393)로 정의한다. 이처럼 성격장애

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유연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사고나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장애에 대한 입장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정신역동적 조망(psychodynamic perspective)과 사회문화적 조망(socio-cultural perspective)은 한 인간의 성격장애를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괴상한 성격장애, 극적인 행동장애, 불안 성격장애로 나누어지고, 그 중 괴상한 성격장애는 편집형 성격장애,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나누어진다(Davison 265 재인용).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정신분열성 성격장애가 더피의 성격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슨과 존 널(John Neale)에 따르면,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하지 않고, 감정표현이 부족하며, 성에 관심이 없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265-66). 로렌 엘로이(Lauren Alloy), 존 리스킨드(John Riskind), 마그릿 매노스(Margaret Manos)는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가족과 떨어져 있고, 거의 결혼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도 없으며,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체험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한다(289-90). 코머는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며, 모든 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대처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적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여 그 정서에 반응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398-99).

이상과 같은 여러 이상심리학 이론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항상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며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으므로 친한 친구나 믿을 만한 친구가 거의 없고,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포함하

여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셋째,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감정적으로 활기 없고, 무심하고, 무미건조한 상태를 보이며, 감정표현이 없고, 상황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다. 넷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다섯째, 사랑과 여성, 성관계나 결혼에 관심이 거의 없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특성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이 사람과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고립된 생활을 원하고, 사회적 유대를 원하지 않고, 친밀한 가족관계를 원하지도 않고,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사람과 이성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나 성관계, 그리고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더피의 성격을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그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더피는 항상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며 사회적 활동이나 유대관계가 없고, “동료나 친구, 나가는 교회와 신조”(D 105)도 없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않는다. 더피는 대체로 격리 혹은 고립되어 있고, “도시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D 103)하고, “천박하고 현대적이고, 가식적인”(D 103) 지역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직장에 관한 언급은 별로 없지만, 동료와의 관계가 두텁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은 사회적 접촉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자신들의 일을 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Alloy et al. 289-90). 더피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으며, 은행일은 직장 동료와 손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그는 큰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처럼 그는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대체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여 최소한의 대인관계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더피는 가족과 친지에게 무관심하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가족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더피의 가족관계는 성탄절

에 친지를 방문하고 친척들이 사망하면 공동묘지에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가 이러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의무”(D 105)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매우 의례적으로 필요할 경우 사회적 의무나 체면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을 일 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정도이다. 이처럼,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유대관계를 중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그는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감정적으로 활기 없고, 감정표현이 없고, 상황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며, 즐거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삭막한 감성은 그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집과 그의 정신과 외모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도심의 번지르르한 젊은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려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일이 없고, 타인에 대해서도 감정이나 애정이 없다. 그는 장식이 거의 없는 “낡고 어둡침침한 집”(D 103)에서 살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 무질서의 징후를 풍기는 것은 무엇이든”(D 104) 싫어하며, “음울한 토성의 기질”(D 104)을 지니고 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얼굴이 갈색”(D 104)을 띠며, 그의 머리카락은 풍요롭지 못하고, 그의 입은 “무뚝뚝한”(D 104) 모습이고, 눈에는 무정한 기운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광대뼈로 인해 무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결눈질로 바라보면서”(D 104) “3인칭 시점에서”(D 104)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인물이다.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들은 주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칭찬이나 비난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감정도 거의 나타내지 않으며, 즐거움이나 분노도 거의 표현하지 않는 삭막하고 무미건조하고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는데, 더피는 바로 이러한 인물로 제시된다.

넷째, 더피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시니코 부인이 열정적인 사랑의 반응을 보였을 때 더피는 화들짝 놀라고, 일주일간 만나지 않다가, 다시 만나 작별을 고하는

데, 이것이 더피의 문제해결 방법이다. 이처럼 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시니코 부인의 열정적인 사랑에 직면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 뿐이다.

다섯째, 더피는, 시니코 부인은 물론이고, 그 어떤 여인을 대상으로도 사랑과 성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랑이나 성적 환상이나 접촉, 성관계, 그리고 결혼에 관심이 없다. 그는 안정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여성과 교제하려는 욕망도 의지도 없다. 이처럼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에 대한 욕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그의 성역할과 성적체감 발달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피는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장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더피는 시니코 부인을 만나면서 그녀의 미모의 얼굴과 “대단한 감수성의 기질”(D 105)과 “풍만한 가슴”(D 105)에 대한 감각을 느끼며, 단 둘이서 저녁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두컴컴하고 한적한 방에서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며, “영혼의 치유할 수 없는 외로움”(D 107)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랑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할 때, 그는 그녀의 육체적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가 성적 접촉을 불쾌하고 역겹고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니코 부인과 헤어진 지 두 달 정도가 되었을 때 그가 쓴 글 중 “남자와 남자 사이의 사랑은 성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은 성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D 108)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여전히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그에게 “모든 인연은 슬픔에 이르는 인연”(D 108)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는 이성을 특히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더피는 친구와 동료, 가족, 친지, 이성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없으며, 주어진 문제를 회피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비평가들은, 그가 “삶과 사랑, 감정, 인간애를 거부하는 인물”(Tindall 31)이고, “종교, 가족관계, 우정, 결혼, 정치, 예술, 그리고 인생 그 자체도 거부”(Herring 66 재인용)하며, “인간적 교류가 없으며”(Lowe-Evans 395 재인용), “이성 간의 사랑의 가능성을 거부”(Lamos 63)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것은 더피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의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랑과 성과 결혼에 대한 관심의 결핍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피가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의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시니코 부인과의 만남에서 보여주듯이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이나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그녀가 제안하는 성적 친밀감의 표시를 위협과 위협으로 느끼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더피는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시니코 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더피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니코 부인을 포함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가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러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근원적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조이스의 중요한 관심사는 더피가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왜 이러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더피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

이다.

더피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는 그가 성장한 가정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성격은 어린 시절의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성격심리학의 이론은 더피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장애의 요인은 대부분 한 인물이 성장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격장애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이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한 인간의 성격은 그 인물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는 유전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역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심리학 이론에서, 정신역동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은 한 인간의 성격장애 혹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신역동이론가들은 이상행동은 아동기에 기원을 둔 무의식적인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며(Alloy et al. 11), 인간의 “심리적 갈등이 어린 시절의 관계 및 어린 시절의 외상성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든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Comer 37). 이와 같이 정신역동적 관점은 한 인물의 성격장애는 그 인물의 어린 시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는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관계에서 부모는 생애 초기의 중요한 인물이므로 그들은 대부분 부적절한 발달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Comer 39).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가족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상정한다(Alloy et al. 106).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타인은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는 경직된 자기 보호적 행동을 취하거나 타인들을 완전히 만나지 않는다(Alloy et al. 113). 특

히 부모에게 거부당한 어린이는 자신에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불안 때문에 그는 거의 모든 긴밀한 관계의 일부인 자신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Alloy et al. 113). 전형적으로 성인들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억압된 갈등, 즉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며(Alloy et al. 118), 어린 시절 반복된 학대와 애정결핍 역시 거의 모든 성격장애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Comer 397).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며, 그들은 그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상심리학의 사회문화적 관점은 환경적 맥락에서 이상행동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환경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진다(Alloy et al. 98). 이것은 행동이나 사고가 사회나 문화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한 인물의 미래의 의식적, 무의식적,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며, 부정적인 경험은 한 개인의 이상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은 과거 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성인이 된 그 인물의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개인은 어린 시절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무의식적 갈등을 경험하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경험은 그 인물의 성격적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의 하나인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는 단위이다.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는 안정감을 얻게 되고 원만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관습에 잘 적응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사회의 관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환경은 포괄적으로 불행한 가정을 말하며, 이러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와 갈등하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

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정신장애, 부모의 부재, 부부싸움, 과잉 보호, 경제적 빈곤, 편애, 폭력, 학대, 무관심 등도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며, 어린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성장한 후에는 그의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역동적 조망과 사회문화적 조망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과거 특히 개인의 유년시절의 가정환경은 한 인물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의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은 그것을 경험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불안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개인의 정상적인 성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한 개인과 부모의 관계, 가족의 관계, 그 가족이 위치한 역사적 상황은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그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정신역동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의 공통점은 이상 심리 혹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어린시절의 성장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이며 가정 환경과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이들의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더피가 친구와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특히 이성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가정과 부모는 그의 부적절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가 타인과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더피는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이성에 별 관심이 없으며,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처럼 더피가 현재의 삶에서 타인과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성년기의 삶을 위한 정서적 기초와 정체감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더피의 정신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이 그의 성격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더피의 사고나 행위는 현재의 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사고나 행위에 대한 과거의 지배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니

코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잘생긴 얼굴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반응은 곧 그의 과거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영향으로 곧 사라져 버린다. 이처럼 그의 과거는 그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곧 더피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건」에서는 더피의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피의 과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을 창작한 의도나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피는 더블린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의 성장과정은 더블린 사람들의 성장과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을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공공생활, 결론으로 구성한 것을 보면(Litz 368-69), 이 작품은 유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르는 인간의 성장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작품마다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조이스는 그 등장인물들의 성장과정을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나 더블린 사람들의 성장 과정으로 의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블린 사람들』에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성장했던 환경은 더블린 사람들 혹은 더피의 과거 성장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에 제시된 가정환경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듯이, 더피는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에 노출되어 학대를 당하고, 정서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는 부모가 장기간 부재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부모에게서 버림받아, 친척 집에 얹혀살면서 부모의 사

랑과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더피의 성장과정은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년기를 거쳐 소년기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제시된다.

「한 조각 구름」(“A Little Cloud”)에 나오는 아이는 갓난아이로서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인물들 중 가장 어린아이이다. 아버지 찬들러(Chandler)는 런던으로 가서 자칭 저널리스트로 성공한 갤러허(Gallaher)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갤러허가 누리고 있는 유럽대륙의 유대인 여자들의 “정열과 관능적 욕망”(D 78)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가난과 천박하고, 멍하고 숙녀인 체하는 아내에 대한 불만과 시인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무지근한 분노”(D 79)를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에게 터트린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그쳐!”(D 80)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아버지의 위협적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시동안 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두려워서 발작을 일으키고 다시금 소리 내어 울기 시작”(D 80)한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행위는 아이에게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한 사실은 소리를 멈췄다가 다시 부르르 떨면서 울어대는 아이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가해지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언어는 아이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러한 아버지의 존재는 그에게 위협적인 대상이 된다.

「한 조각 구름」에 나오는 어린아이보다 좀 더 성장한 어린이의 모습은 「대응」(“Counterparts”)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아이는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고 말도 할 줄 아는 유년기의 어린아이로 등장한다. 이 아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술만 마시는 아버지에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매를 맞아야 하는 불행한 더블린의 어린아이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다섯이나 되지만 어린 아이 톰(Tom)은 집안에 불을 켜놓지 않았고, 저녁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며, 난로불을 꺼트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지팡이로 맞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일로 아들을 마음 놓고 때리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아이를 쫓아가 붙잡는 행위 그 자체는 아들에게 위협

이요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다. 아이는 쫓아오는 아버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쓰지만, 곧 아버지에게 잡혀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도피구를 찾을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사정없이 후려치면서”(D 94)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허벅지를 후려갈기자 고통의 비명 소리를 외치며 영문도 모른 채 허공에 두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떨면서 때리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소년기 작품에 해당하는 「자매들」(“The Sisters”)과 「우연한 만남」(“An Encounter”), 그리고 「애러비」(“Araby”)의 소년들은 부모가 없어 숙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서 부모의 사랑과 온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아일랜드에서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경제적 난국 속에서 부모들이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였거나,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돈을 벌러 떠났거나,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경우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은 부모가 부재하는 가정에서 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특히 「애러비」에서 소년은 가족의 사랑은 고사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숙부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 숙부는 평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대리 부모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할 나이에 소년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도 없는 친척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 또한 숙부의 집에 세들어 살았던 신부 역시 소년에게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일 수 있으나 그가 기거하던 방에서 소년이 발견한 그의 유품들은 그가 진정한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신부의 존재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장이 필요한 소년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모의 상실에 대한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경험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재하는 집안의 분위기 역시 어린 아이들의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자매들」에서는 소년의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부마저 상당히 의심스러운 존재로 제시된다. 신부는 육체적 마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마비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그가 성직매매죄를 저질렀거나 소년과의 동성애적인 죄를 저질러 매독에 걸린 신부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신부의 존재는 후일 소년의 성격 형성에 당연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연한 만남」에서 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신부들은 소년에게 정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 소년이 여행 중에 만난 “괴짜 노인”(D 18) 역시 괴상한 행동을 하여 소년에게 불안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블린」(“Eveline”)에서 이블린과 동생들이 살아왔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 환경과 「사자들」(“The Dead”)에서처럼 자녀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가부장적 아버지가 존재하는 가정은 역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더블린의 어린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거나 가부장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아예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며 성장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단편들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은 더피의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피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더피가 다른 사람을 특히 여성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앞에서 살펴본 성격장애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형성하게 되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이나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결국 더피가 타인과 시니코 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때문이며, 그러한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유발한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성장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조이스는 더피의 성격장애와 그 원인을 제시하여 더블린 사람들이 그 성격장애와 원인을 파악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마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원인을 아일랜드의 역사와 더피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 제시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당장 더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하나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하는 세대의 미래를 통해 구현될 건강한 국가의 탄생이 그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아마도 더피의 문제는 작품 속의 현재의 시점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조이스는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미 불행한 역사를 지닌 사람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그의 의식의 변화는 아일랜드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몇 세기동안 더블린에서 어떠한 사회적 변혁도 불가능한 것”(D 107)처럼 보인 것은, 조이스가 당시 아일랜드의 상황과 더피의 삶의 변혁의 불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 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은 그가 자신의 무의식화된 욕구나 갈등의 요소를 의식화하고 그러한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더피에게서 치료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갈등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피가 이 작품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몇 차례 더 경험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성의 성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을 때, 그의 삶은 창조적이고 활력적이며 풍요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블린 사람들이 조이스처럼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황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조이스의 문제의식과 더블린 사람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그들은 역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더피의 비정상적인 성격은 그의 과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것은 곧 그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과거에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는 그들의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할 경우, 개인과 국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정상적인 환경과 그들의 건강한 성장은 곧 개인과 국가의 건전한 미래를 형성하는 기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피의 마비가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어 왔으므로 그의 마비의 치유 또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부모가 존재하는 화목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역사를 개선함으로써 더블린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조이스는 더블린이 혹은 아일랜드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마비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러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동대)

## 인용문헌

- 박윤기. 「“가슴아픈 사건”에서의 사랑의 부재와 제임스 더피의 좌절」. 『제임스 조이스 저널』, 15권 2호, 2009, pp. 5-20.
- Alloy, Lauren B., et al. *Abnormal Psychology: Current Perspectives*. 9<sup>th</sup> ed., McGraw Hill, 2005.
- Comer, Ronald J. *Fundamentals of Abnormal Psychology*. 6<sup>th</sup> ed., Worth Publishers, 2011.
- Connolly, Thomas E. “A Painful Case.”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edited by Clive Hart, Faber and Faber, 1969, pp. 107-14.
- Davison, Gerald C., and John M. Neale. *Abnormal Psychology*. 6<sup>th</sup> ed., John & Sons, 1996.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UP, 1987.
- Joyce, James. *Dubliners*.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Terence Brown, Penguin Books, 2000.
- .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Faber & Faber, 1975.
- Lamos, Colleen. “Duffy’s Subjectivation: The Psychic Life of ‘A Painful Case’.” *European Joyce Studies*, vol. 10, 2001, pp. 59-71.
- Leonard, Garry Martin. *Reading Dubliners Again*. Syracuse UP, 1993, pp. 210-27.
- Litz, A. Walton. “Two Gallant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Penguin Books, 1979, pp. 368-78.
- Lowe-Evans, Mary. “Who Killed Mrs Sinico?”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32, 1995, pp. 395-402.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oonday, 1959.
- Wachtel, Albert. *The Cracked Looking Glass: James Joyce and the Nightmare*

*of History*. Associated UP, Inc., 1992.

Wheatley-Lovoy, Cynthia D. "The Rebirth of Tragedy: Nietzsche and Narcissus in 'A Painful Case' and 'The Dead'." *James Joyce Quarterly*, vol. 33, 1996, pp. 177-94.

**Abstract**

## “A Painful Case”: Mr. Duffy’s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Sanghyo Kim

Lovelessness is the main theme of “A Painful Case,” one of the stories in James Joyce’s *Dubliners*. What is the reason for Mr. Duffy’s lovelessness? According to abnormal psychology,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is that the people who have this symptom have neither human communion nor sexual emotion. Like people with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Mr. Duffy doesn’t have any communion with others or feel sexual attraction towards women. His lovelessness is because of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Then what is the cause of Mr. Duffy’s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Abnormal psychology theorists explain that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is mostly caused by a human being’s negative growing environments, especially a negative family background. Even though there’s no evidence about Mr. Duffy’s growing environment in the story, we can find the evidence in the rest of the *Dubliners* stories because Joyce intended *Dubliners* to be a history of a human being. So the childhood characters in other stories of *Dubliners* can be seen as characters who represent Mr. Duffy’s childhood. There is a lot of evidence which shows the negative circumstances of Mr. Duffy’s early life in *Dubliners*. In these circumstances he developed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and, as a consequence, cannot love Mrs. Sinico or other men and women.

Mr. Duffy’s impotence does not seem to be solved in the story, but Joyce implies its resolution in the story. He insists that Dubliners try to establish normal families, and then Irish children will grow up as normal characters, be

able to love, and create a normal history of Ireland.

■ **Key words:** *Dubliners*, “A Painful Case,” Mr. Duffy, love, lovelessness, abnormal personality, abnormal psychology,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더블린 사람들』, 「가슴 아픈 사건」, 더피, 사랑, 사랑의 부재, 성격장애, 이상심리학,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논문접수: 2021년 11월 26일

논문심사: 2021년 11월 26일

게재확정: 2021년 12월 17일